

학교탐방

거진중학교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방안 마련”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 선정 ... 교사들 양질의 수업 위해 전문화 연수

거진중학교는 지난 61년 4월 3학급으로 개교한 후 69년과 2000년도에 거진여자중학교와 분리, 통합을 거치면서 지금의 남녀공학에 이르렀다.



김영국 교장

거진항을 중심으로 한 명태 풍어기 때 거진읍이 고성군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당연히 학생수도 많았지만, 이젠 명태고갈로 인해 거주인구가 급감해 한 학년에 2반씩 6개 반 1백54명이 재학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어촌지역의 특성상 학교중심의 학력증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과목은 20% 감축하고 수학과 영어는 각각 20% 증가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교과형 프로그램을 주 2회 2시간(월, 화) 운영하고 있고 교과관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는 축구반, 밴드반, 일본어반, 농술반 배드민턴반, 기타로 배우는 팝송, 연극반, 사물놀이반, 꽃누름반, 쿼트반, 수학습화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텃밭 가꾸기,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 나도 과학자, 문화체험(뮤지컬 관람 및 창경궁), 아나바다 장터 및 먹거리 마당, 전방부대 체험, 아영(수련시설 이용), 거진 둘레길 걷기, 세종대왕의 얼을 새기며(독서퀴즈대회), 졸업 축제, 나누는 기쁨 등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이 가정적·지역적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거진중학교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들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치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특기적성과 관련해 요리, 배드민턴, 기타, 댄스, 축구, 방송, 마술, 밴드, 사물놀이, 쿼트, 과학실험, 연극, 사격 등 동아리를



거진중학교 전경.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나 선배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학교에선 지도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들도 양질의 수업을 위해 전문화를 위한 연수는 물론 매월 2주에 한 번 수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교사와 학부모를 모시고 공

개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거진중학교 백흥기 교장은 “행복 더하기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학교,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에게는 잡무를 줄여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13>

고성팔경(高城八景)⑥ 건봉사(乾鳳寺) II

금강산 건봉사 주변의 지정문화재

금강산 건봉사의 사역 내에는 현존하는 문화재는 지정·비지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정문화재로는 건봉사의 사지(寺址)가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1982년 11월 3일 지정되었으며, 흥예교인 능파교와 육송정홍교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인 불이문 이 강원도 문화재로 존재하고 있다.

능파교(凌波橋)는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 소재한 능파교(고해를 건너 해탈의 세계로 가는 다리)는 다른 이름으로 산영교(山映橋)이라 부른다. 봉서루와 대웅전 들어가는 문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봉사 경내에 있는 4개의 석교(흥예교)중 최상단에 위치하여 가장 아름답고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크며 건실하게 보존되어 있다.

불이문 입구 좌편에 서 있는 '능파교신창기(凌波橋新創記, 1708년)' 비문(碑文)에 따르면 1704년 시작하여 1706년에 완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1745년(영조 21)에 대흥수로 붕괴되어 1749년(영조 25)에 중수하였고, 1880년(고종 17)에 다시 무너져 그 석재를 대웅전의 석계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2002년 2월 6일 보물 제1336호 지정되었으며, 다리 규모는 폭 3m, 길이 14.3m, 다리중앙부의 높이가 5.4m 되어 있다. 2004년 6월 5일 보수공사 도중에 무너진 것을 2005

년 10월 완전 복구하였다.

육송정 홍교(六松亭虹橋)는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번지와 탑현리 53번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육송정 홍교는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에 의하면 능파교와 함께 을축년(1745년)의 대흥수로 붕괴되어 1765년 을력 2월에 석교를 중수하고 정자 1칸을 다리 옆에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고, 『건봉사본말사적』에는 1765년(영조 41)건봉사 스님인 현봉과 치흡이 육송정·백운교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다리의 명칭과 건립연대의 일부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1633년 이식(李植, 1584~1647)이 편찬한 『수성지(水城誌)』에 다리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능파교(1704년)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748년 편찬된 『간성군읍지』에 육송정 홍교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능파교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육송정 홍교는 축조 당시에 백운교(白雲橋)로 불렸다고 한다. 이 다리는 단간 흥예교로 자연지형을 잘 이용



사진 왼쪽부터 능파교(복원모습), 육송정 홍교, 불이문.

하여 폭이 2.8m, 중앙부 높이가 4.92m, 내폭 길이 7.7m의 규모에 석축을 쌓고 길이 10.6m의 다리를 축조하였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우리나라 석교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다. 2002년 2월 6일 보물 제1337호 지정되었다. 고성군은 2005년 10월 13일 착공으로 2006년 6월 29일 보수공사를 거쳐 새로 복원됐다.

불이문(不二門)은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에 소재한 불이문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다포양식 겹처마 팔작지붕을 지녔다. 익공계 건물로 지붕의 4모퉁이에 용두(龍頭)가 있다. 정면의 처마 밑에는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이 쓴 「不二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기단은 5.4m×5.3m의 크기로 장대석으로 사방을 둘렀다. 초석은 일변 길이가 62cm, 높이26cm의 장방형이며 모를 죽였다. 초석간 거리는 정면 308cm, 측

면246cm이다. 기둥은 석주와 목주가 혼용되어 있다. 석주의 높이는 155cm로 하단은 방형으로 치석하고, 상면은 배흘림 수법이 가미된 원통형이다. 이 부분에는 길이 94cm의 금강저가 조식되어 있고, 상면에는 원형의 돌출대를 마련하여 석주를 받치고 있다. 천정에는 「불이문중건단청대시주 운암당봉헌 불기이구오오년 무진사월일(不二門重建丹青大施主 雲巖堂奉欣 佛紀二九五五年 戊辰四月日)」이라 묵서된 현판이 있다. 사적기(乾鳳寺及乾鳳寺本寺史蹟)에 의하면 1920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하였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시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